

준비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 원자력 분야 제조업체를 컨택트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직접 전시회에 참여해 회사를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팅 외 시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여 개발을 원했던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미팅을 요청하는 등 상담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결론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았으며, 특히 이번 전

시회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개발 진행 중인 관련 업체들을 발굴하게 되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발굴한 업체들을 발판삼아 원자력 기자재 수출에 주력하고 2019년에는 ASME N STAMP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내외 원자력 전시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회사 매출 신장은 물론 국내 원자력산업의 수출 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

“프랑스 - 한국 간 원전 기자재 수출 왕래에 한몫”

소승희

코리아 뉴클리어 파트너스 차장

국내 원전 기자재산업은 국산화를 통한 강력한 국내 기자재 공급망을 구축하였으나,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수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우리 회사는 공격적인 해외 수주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전시 참가도 그 중 하나다.

이번 WNE 2018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주변으로 유럽 지역의 기술 수준을 파악해보기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했는데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유럽 지역 최대 원자력산업 전시회인 WNE 2018에는 유럽 지역 원전 운영사와 건설사 및 기자재 제작사가 다수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원전 기자재 제품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많은 국가의 바이어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EDF, FRAMATOM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3일간의 전시부스 운영 기간 동안 국내 전력 기자재 및 KNP 사업 분야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수행했다. 특히 사전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해 매칭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프랑스원자력공사(FRAMATOM) 등과 B2B 미팅을 통해 유럽 지역에 국내 원전 기자재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전력 기자재 진출 전략을 협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전시회 방문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전력공사와 30분간의 미팅을 통해 EDF 역시 다양한 공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 회사를 포함한 한국 공급자의 벤더 등록이 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



KNP는 사전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해 매칭된 프랑스전력공사(EDF), 프랑스원자력공사(FRAMATOM) 등과 B2B 미팅을 통해 유럽 지역에 국내 원전 기자재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전력 기자재 진출 전략을 협의했다.

청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원전 중소기업들이 EDF에 벤더 등록을 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원자력공사와의 미팅에서 놀란 것은 담당자가 한국 원전 부품의 우수성이 유럽 제품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손가락을 치켜세울 때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국 원자력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다.

회의를 함께한 담당자와 우리는 한국 원전 기자재 업체가 벤더 등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양국의 벤더 등록 담당자를 연결해주기로 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했다.

미팅 이후에는 전시회 현장에서 KNP 부스를 방문한 원전 기자재 관련 기업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으며, 이외에도 전시장을 둘러보며 유럽 현지 시장 정보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국내 기업의 벤더 등록 협의에 보람 느껴

이번 출장을 통해 느낀 점은 유럽 내 대형 EPC 업체 및 원전 발전소 운영사들이 한국의 KEPCO,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과 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우

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 KNP 부스를 찾아오는 고객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기자재 업체를 소개받고자 하는 요구가 대단히 많았다.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개인적으로는 유럽 지역의 주요 원전 및 전력 운영사 다수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국내 기업들의 벤더 등록 프로그램 논의를 심도있게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생각한다.

귀국 후 전시회에서 받았던 명함을 정리하면서 현장에서 만났던 느낌을 살려 각각 감사 메일을 발송했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해 문의한 고객에게는 국내 공급사 정보와 카탈로그를 발송해 KNP를 통해 수출 지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나의 작은 시도가 양국 간 원전산업 분야의 수출 왕래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은 한국 원자력산업회의 직원과 함께한 각 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